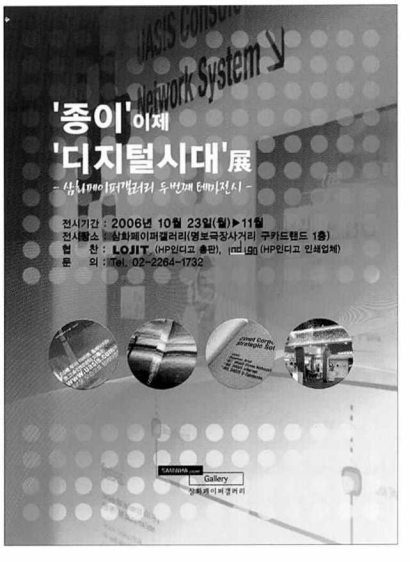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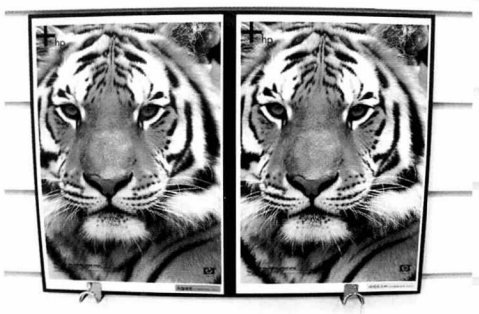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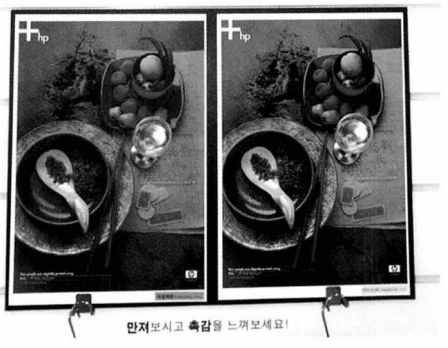
전시회 삼화제지 페이퍼 갤러리

종이도 이제 디지털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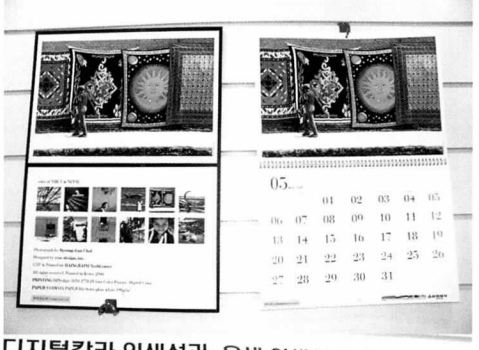
삼화제지(주)(대표 김성호)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 한달간의 일정으로 테마 기획전인 '종이, 이제 디지털 시대' 전시회를 개최했다. 이번 전시회는 지난 8월 오픈한 삼화제지 페이퍼 갤러리의 두 번째 테마전으로 삼화제지의 고급인쇄용지들이 디지털 컬러 인쇄에서도 인쇄적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.







전시장 곳곳에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지면위에 각각 오프셋과 디지털인쇄방식으로 인쇄해 인쇄적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.



디지털칼라 인쇄성과 옵셋 인쇄성 비교

옵셋인쇄된 제작물과 디지털칼라인쇄된 제작물의 인쇄재현성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.

✚ 삼화페이퍼갤러리는 어떤 곳

지난 8월 21일 서을 을지로에 문을 연 삼화제지페이퍼갤러리는 '고객이 원하는 종이, 디자인이 원하는 종이, 시대가 원하는 종이'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고품격 종이문화를 만들고 소개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전시장이다.

갤러리 내부는 삼화제지 전 지종과 종이 견본집들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장과 삼화제지 종이로 만든 다양한 제품과 종이와 관련된 테마를 전시하는 테마전시장 등 크게 두파트로 나뉘어져 있다.

오픈을 기념하는 첫 테마전시회로 지난 8월 24일에는 (사)한국광고사진가협회(KAPA)와 함께 60~70년대 추억의 광고사진전' 을 개최하기도 했다. 특히 이 전시회에서는 1960~70년대 스크린을 누비고 다니던 추억의 스타들 사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아 인기를 끌었다.

마케팅과 예술의 적절한 조화

삼화페이퍼갤러리에 전시된 제작물들은 모두 삼화제지가 직접 생산한 용지에 인쇄한 것이다.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. 갤러리 입장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고도 품위 있게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셈이다.

두 번째 테마기획전인 이번 '종이, 이제 디지털 시대' 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좀 더 구체화됐다. 삼화페이퍼갤러리 디자인팀 민영아 대리는 "깊이 있는 전시회로 만들기 위해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 판매업체인 로지트코퍼레이션 협찬을 받았으며, 오프셋으로 인쇄된 제작물과 디지털컬러인쇄로 인쇄된 제작물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인쇄적성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"고 설명했다.

디지털 컬러인쇄는 기존 오프셋인쇄와 달리 작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대기시간 없이 데이터 확인을 마치면 즉시 현장에서 고품질의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다. 또한 일반 교정인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 한 장의 소량 인쇄물도 인쇄가 가능하고, 다양한 용지에 최대 7색 오프셋인쇄 수준의 고품질 인쇄표현을 할 수 있어 교정지 프린트, 각종 제안서, 회사소개서, 초청장, 사진집 등 점차 그 사용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.

갤러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,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. 자세한 사항은 삼화페이퍼갤러리((02)2264-1732)로 문의하면 된다.